



텐서플로 딥러닝

최석재 lingua@naver.com

텐서플로 시작

텐서플로 시작

- 텐서플로 *Tensorflow*

- 텐서플로는 머신러닝, 특히 딥러닝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
- 구글이 내부 용도로 개발하였다가 2015년 11월 오픈소스로 공개
- 텐서플로 자체는 C++로 작성되었으나 Python, Java, Go 등의 언어로 프로그래밍이 가능 (Python을 최우선으로 지원)
- 딥러닝의 많은 연산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CPU와 GPU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- 윈도우, 맥, 리눅스, 안드로이드, iOS, 라즈베리 파이 등 다양한 OS에서 구동 가능

텐서플로 시작

- 케라스 *Keras*

- 구글의 AI 연구원 프랑소와 솔레가 2007년 개발된 AI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Theano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wrapper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시작
- 2015년 구글 텐서플로가 공개된 뒤 케라스는 Theano와 Tensorflow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었음
- 2019년 텐서플로 2.0이 발표되면서 케라스는 tensorflow만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음
- 2023년 Keras3가 발표되어 PyTorch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됨
- 케라스는 Sequential, FunctionalAPI, Model Subclassing의 3가지 방법으로 딥러닝 모델을 작성할 수 있으며, 이 중 Sequential 모델은 작성하기가 간편하여 처음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 적합함

텐서플로 시작

- Keras2 vs Keras3

- 2023년 12월, Keras3가 발표되었다
- Keras2는 텐서플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`tf.keras` 와 같이 사용해야 하지만
- Keras3는 단순히 `import keras` 하여 사용하면 된다
- 대부분 사용 방법은 바뀌지 않았으므로
- 기존에 `tf.keras`로 사용하던 것을 `keras` 로 사용하면 된다
- 그러나 아직 모든 API가 Keras3로 넘어가지 않았고, 일부 사용법이 다를 수도 있다
-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Keras2를 사용하면서 Keras3도 사용한다
- <https://keras.io/api/> 을 참조

텐서플로 시작

- 텐서플로 라이브러리 사용
 - 텐서플로를 임포트하고, 버전을 확인해본다
- `import tensorflow as tf`
- `print(tf.__version__)`

텐서플로 시작

- 첫번째 텐서플로 프로그램
 - 간단한 텐서플로 프로그램을 작성해본다

- `import tensorflow as tf`

- `w = tf.Variable(2.0)`

- `b = tf.Variable(0.7)`

신경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을 값을 tensor로 만들어준다

- `x = 1.5`

- `y = w * x + b`

$y = ax + b$ 형태의 간단한 수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

- `print("y:", y)`

- `y: tf.Tensor(3.7, shape=(), dtype=float32)`

- `shape=() : 스칼라`

텐서플로 시작

- 첫번째 텐서플로 프로그램

- 결과 확인

- ```
if y == 3.7:
 print("Right")
```

Right



텐서플로를 이용한 회귀모델

# 텐서플로를 이용한 회귀모델

※ tensorflow 를 여러 번 사용하면  
시스템 자원이 부족하여 더 이상 작동이 안될 수 있다  
이러한 경우에는 Jupyter를 완전히 종료하고 다시 들어온다  
(distributed\_function 에러 또는 graph error 등)

## • 텐서플로를 이용한 회귀분석 모델

-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본다
- 회귀분석에 필요한 가중치와 편향(절편) 값을 찾아야 한다

- `import tensorflow as tf`
- `import numpy as np`

- `x = tf.constant([1, 2, 3, 4, 5, 6, 7, 8, 9, 10], dtype=tf.float32)`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float32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
- `y = tf.constant([3, 5, 5, 6, 7, 7, 8, 9, 9, 10], dtype=tf.float32)` x, y 값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`tf.constant()`로 만들어주고,  
w, b 값은 학습 중 갱신되므로 `tf.Variable()`로 만들어준다
- `w = tf.Variable(tf.random.normal(shape=[1]))`
- `b = tf.Variable(tf.random.normal(shape=[1]))`

- `def compute_loss():`  
    `y_pred = w * x + b`  
    `loss = tf.reduce_mean((y - y_pred)**2)`  
    `return loss`

shape = [1] → [0.8272306]

shape = [2,1] → [[0.02256799]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0.41108167]]

shape = [2,2] → [[0.5458367 0.8452722 ]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0.09414423 0.01103127]]

가중치 w와 편향 b는 하나씩만 필요하므로  
shape=[1]

`reduce_mean`: 입력값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  
전체 결과는 MSE와 동일

# `reduce_mean()`은 차원을 제거하고 평균을 구한다  
`x = tf.constant([[1, 3], [2, 6]])`      # (2, 2)  
`print(tf.reduce_mean(x))`              # 3

# 텐서플로를 이용한 회귀모델

최적화 함수로는 Adam을 사용

이 최적화 함수로 손실값 계산 함수와 최적화 대상인 w와 b를 넣어 모델을 훈련한다  
훈련의 결과로는 loss를 최소화하는 w와 b의 최적값이 산출된다

rmsprop, adam은 기본 학습률(lr)이 0.001이고, sgd와 adagrad는 0.01이다

## • 모델 훈련

```
0 loss: 0.3865098
100 loss: 0.1418192
200 loss: 0.1418182
300 loss: 0.14181809
400 loss: 0.14181809
500 loss: 0.14181809
600 loss: 0.14181809
700 loss: 0.14181809
800 loss: 0.14181809
900 loss: 0.14181809
```

- optimizer = tf.optimizers.Adam(learning\_rate=0.07)
- for i in range(1000):  
optimizer.minimize(compute\_loss, var\_list=[w, b])  
  
if i % 100 == 0:  
print(i, "loss:", compute\_loss().numpy(), "\n")
- print("final w:", w)
- print("final b:", 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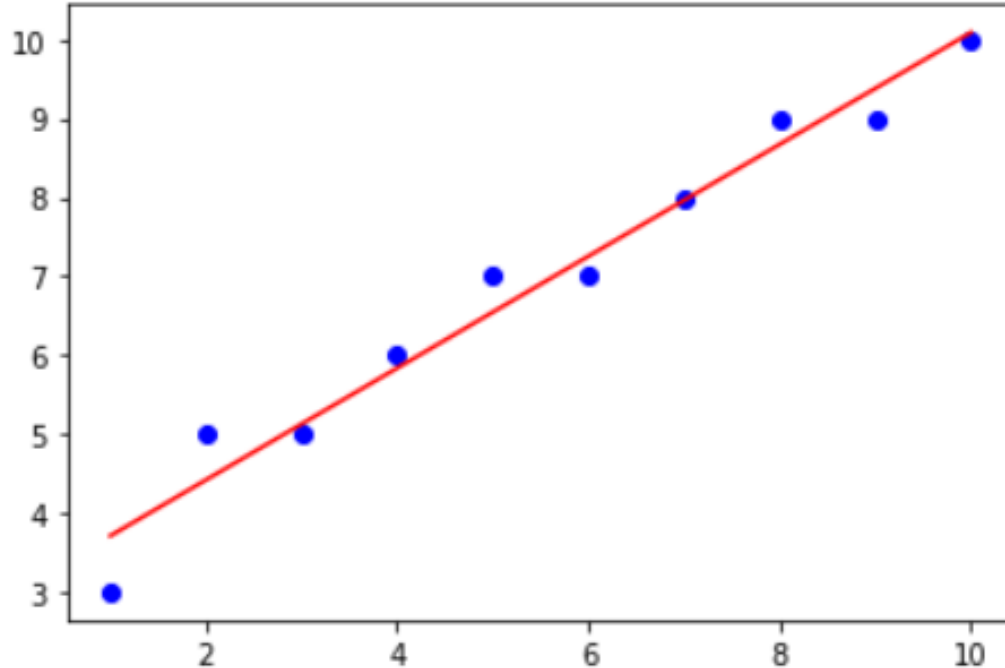
※ optimizer.minimize는 손실값을 줄여나가며 손실함수에 사용된 변수 중 지정된 것(w, b)을 찾는다

```
final w: <tf.Variable 'Variable:0' shape=(1,) dtype=float32, numpy=array([0.7090909], dtype=float32)>
final b: <tf.Variable 'Variable:0' shape=(1,) dtype=float32, numpy=array([3.0000002], dtype=float32)>
```

# 텐서플로를 이용한 회귀모델

- 그래프로 확인

- `%matplotlib inline`
- `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`
- `plt.plot(x, y, 'bo')`
- `plt.plot(x, w * x + b, 'red')`
- `plt.show()`



그래프 결과 모델이 현재 데이터를 통해  
w와 b 값을 잘 찾은 것으로 보인다

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# 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--

- 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 앞에서는 선형 회귀식에 필요한 가중치  $w$ 와 편향  $b$ 를 직접 찾았다
- 이번에는 Keras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선형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
- optimizer를 이용하여 예측 결과의 loss를 가장 적게 하는 최적 가중치를 찾는다

- import tensorflow as tf
- import numpy as np

- x = tf.constant([1, 2, 3, 4, 5, 6, 7, 8, 9, 10], dtype=tf.float32)
- y = tf.constant([3, 5, 5, 6, 7, 7, 8, 9, 9, 10], dtype=tf.float32)

- model = tf.keras.Sequential()
- model.add(tf.keras.layers.Dense(units=10, activation='tanh', input\_dim=1))
- model.add(tf.keras.layers.Dense(units=1))

↑  
input\_shape=(1, ) 와 같이도 표현  
은닉1층을 구성할 때 입력층의 형상을 지정

# 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 신경망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 `opt = tf.keras.optimizers.Adam(learning_rate=0.07)`
- `model.compile(loss='mse', optimizer=opt)`
- `model.summary()`

여기서는 훈련데이터 부족으로 학습률을 지정해주었지만,  
일반적으로는 기본값을 사용한다

`.compile()`은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손실함수, 옵티마이저  
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
loss 값으로는 보통은 mse 나 mae를,  
optimizer로는 adam 또는 rmsprop을 많이 사용한다

Model: "sequential"

| Layer (type)    | Output Shape | Param #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=====           | =====        | =====   |
| dense (Dense)   | (None, 10)   | 20      |
| =====           | =====        | =====   |
| dense_1 (Dense) | (None, 1)    | 11      |
| =====           | =====        | =====   |

Total params: 31

Trainable params: 31

Non-trainable params: 0

# 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 훈련 결과 최종 손실값

- `model.fit(x, y, epochs=1000)`

.fit()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다  
데이터의 입력, 에포크 수 설정, 배치 사이즈 설정 등을 한다

```
Epoch 994/1000
1/1 [=====] - 0s 13ms/step - loss: 0.0627
Epoch 995/1000
1/1 [=====] - 0s 14ms/step - loss: 0.0627
Epoch 996/1000
1/1 [=====] - 0s 15ms/step - loss: 0.0627
Epoch 997/1000
1/1 [=====] - 0s 12ms/step - loss: 0.0627
Epoch 998/1000
1/1 [=====] - 0s 12ms/step - loss: 0.0627
Epoch 999/1000
1/1 [=====] - 0s 12ms/step - loss: 0.0627
Epoch 1000/1000
1/1 [=====] - 0s 13ms/step - loss: 0.0626
<keras.src.callbacks.History at 0x7e501ce55510>
```

※ 손실값이 매우 작게 나왔다  
훈련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많은 epoch를 사용했다



# 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--

- 훈련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

- model.predict(x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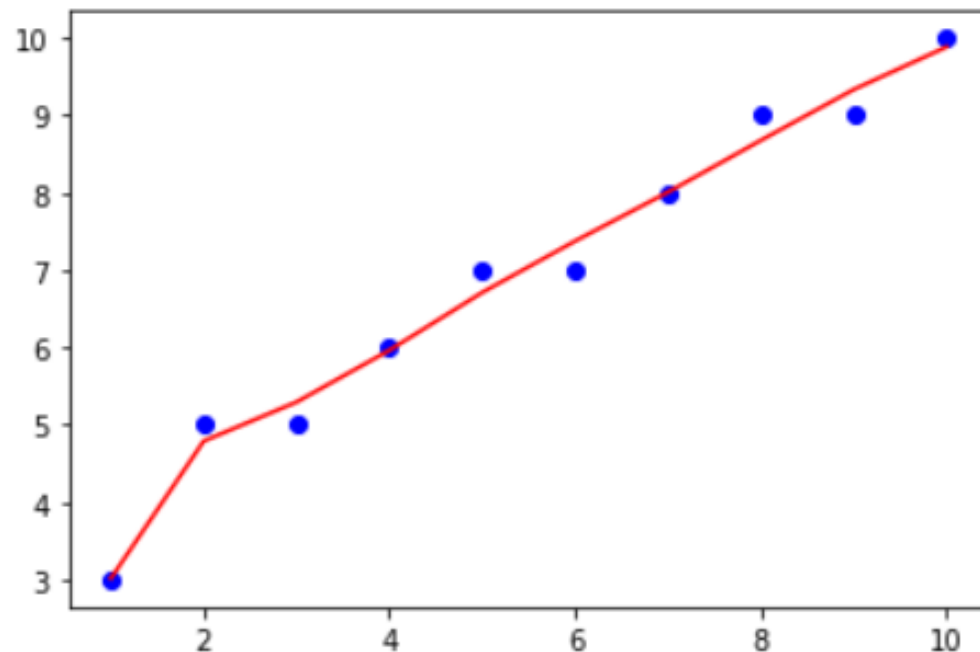
```
1/1 [=====] - 0s 109ms/step
array([[3.0081658],
 [4.8011146],
 [5.3583026],
 [5.959837],
 [6.62553],
 [7.324118],
 [8.023972],
 [8.697393],
 [9.319647],
 [9.869003]], dtype=float32)
```

여기서는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예측할 데이터로 넣었다

# Keras Layer를 이용한 모델 생성

- 그래프 확인

- `%matplotlib inline`
- `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`
- `plt.plot(x, y, 'bo')`
- `plt.plot(x, model.predict(x), 'red')`
- `plt.show()`



더욱 완벽한 비선형 모델 생성!

# GradientTape

*tf.GradientTape()*

# tf.GradientTape()

---

- 일반적으로는 compile()과 fit() 메소드를 이용하여 미분을 계산하지만,
- tf.GradientTape()을 사용하여 이들을 대신할 수도 있다
- tf.GradientTape()을 이용하면 compile()에서 설정하는 손실함수, 옵티마이저 설정,
- fit()에서 설정하는 데이터 입력, 배치 사이즈 등을 수동으로 설정해주어야 한다
- tf.GradientTape()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
- 기능적인 면에서는 compile()과 fit()이 최적화되어 있고, 다양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
- 또한 tf.GradientTape()은 중간 과정을 기록하므로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소요된다

# tf.GradientTape()

---

- import tensorflow as tf
- import numpy as np
- x = tf.constant([1, 2, 3, 4, 5, 6, 7, 8, 9, 10], dtype=tf.float32)
- y = tf.constant([3, 5, 5, 6, 7, 7, 8, 9, 9, 10], dtype=tf.float32)
- model = tf.keras.Sequential()
- model.add(tf.keras.layers.Dense(units=10, activation='tanh', input\_dim=1))
- model.add(tf.keras.layers.Dense(units=1))

# tf.GradientTape()

---

- 손실함수와 옵티마이저를 인스턴스로 생성한다

# 손실 함수 인스턴스

- `loss_fn = tf.keras.losses.MeanSquaredError()`

# 옵티마이저 인스턴스

- `optimizer = tf.keras.optimizers.Adam(learning_rate=0.07)`

# tf.GradientTape()

모델 훈련 단계와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할 함수를 정의한다

- def train\_step(x\_batch, y\_batch):  
    with tf.GradientTape() as tape:  
        predictions = model(x\_batch, training=True)  
        loss = loss\_fn(y\_batch, predictions)  
    gradients = tape.gradient(loss, model.trainable\_variables)  
    optimizer.apply\_gradients(zip(gradients, model.trainable\_variables))  
    return loss  
# 모델 학습 함수  
# 예측값 계산  
# 예측값에 대한 손실값 계산  
# 가중치와 같은 훈련 가능 변수들의 그라디언트 계산 (미분)  
#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 변수 업데이트  
# 배치 처리 후의 손실값 출력
- def test\_step(x\_batch, y\_batch):  
    predictions = model(x\_batch, training=False)  
    loss = loss\_fn(y\_batch, predictions)  
    return loss  
# 테스트 데이터 성능 평가 함수  
# 예측값 계산  
# 예측값에 대한 손실값 계산

# tf.GradientTape()

- 배치 사이즈를 지정하여 모델을 학습한다
- 원하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

```
• batch_size = 1 # 앞과 동일하게 배치 사이즈 1로 설정
• for epoch in range(1001): #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GPU 또는 에포크 수를 줄인다
 print(" \n-----\nepoch " , epoch)
 for i in range(0, len(x), batch_size):
 # 2차원 데이터가 되게 하고, 행의 개수는 배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게 한다
 x_batch = tf.reshape(x[i:i+batch_size], (-1, 1)) # 행의 개수는 현 데이터 상황에 맞게 자동 결정되게 함
 y_batch = tf.reshape(y[i:i+batch_size], (-1, 1))
 train_loss = train_step(x_batch, y_batch) # 모델 학습
 print("one train data Loss:", train_loss.numpy()) # 마지막 배치의 손실값
```

-----  
epoch 996  
one train data Loss: 0.12812221

-----  
epoch 997  
one train data Loss: 0.5193209

-----  
epoch 998  
one train data Loss: 0.73994553

-----  
epoch 999  
one train data Loss: 0.080098175

-----  
epoch 1000  
one train data Loss: 0.714967



# tf.GradientTape()

---

-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
- 여기서는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다
- `test_loss = test_step(tf.reshape(x, (-1, 1)), tf.reshape(y, (-1, 1)))`
- `print("Test Loss:", test_loss.numpy())`

```
Test Loss: 0.075838186
```

# tf.GradientTape()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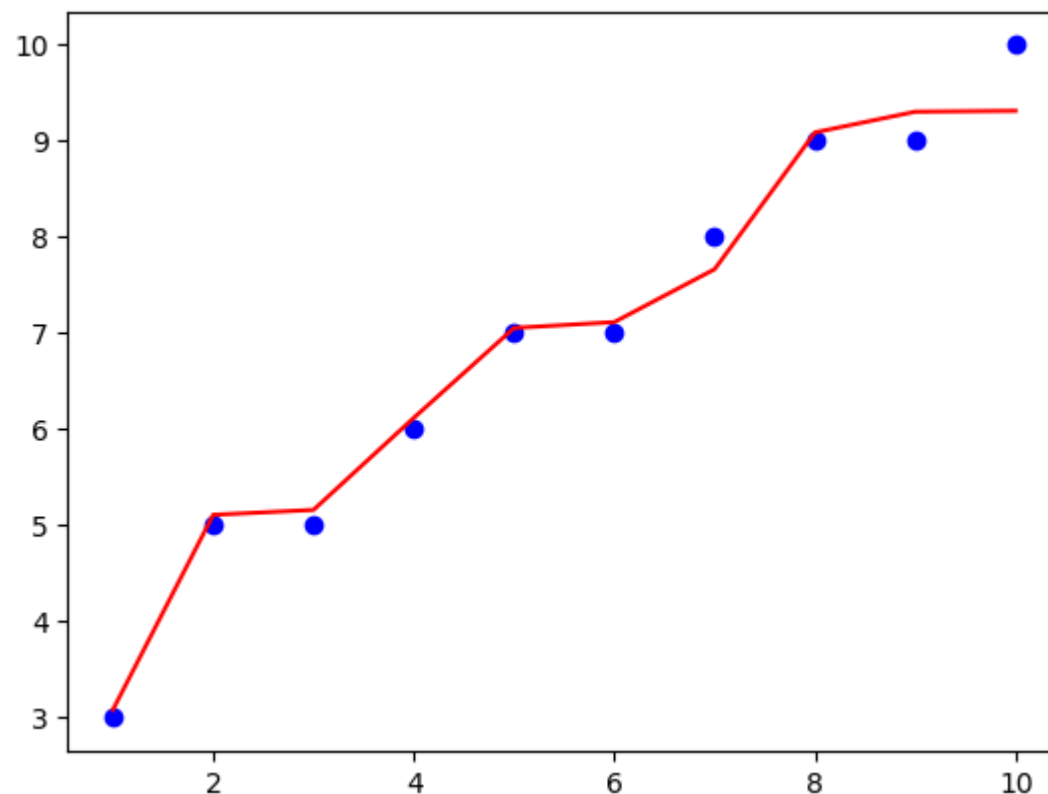
- 예측을 수행한다
- model.predict(x)

```
1/1 [=====] - 0s 59ms/step
array([[3.0834398],
 [5.112029],
 [5.1631465],
 [6.1207447],
 [7.056369],
 [7.1171083],
 [7.6677866],
 [9.090567],
 [9.305961],
 [9.315455]], dtype=float32)
```

# tf.GradientTape()

---

- 성능 시각화
- %matplotlib inline
- 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
- plt.plot(x, y, 'bo')
- plt.plot(x, model.predict(x), 'red')
- plt.show()



Dataset

# tf.data.Dataset

---

- 텐서플로는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텐서플로 텐서를 요구한다
  - 일반적으로는 모델 입력에 넘파이 배열을 사용하지만, 내부적으로는 텐서로 변환된다
  - 텐서플로 텐서는 텐서플로에서만 잘 동작하며, 넘파이 배열과는 다르게 변경 불가능하다
  - 그러나 넘파이 배열은 CPU에서 작동하는 반면, 텐서플로 텐서는 GPU 및 TPU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
- 
- tf.data.Dataset은 텐서를 묶어서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
  - 대규모 데이터를 읽고, 전처리하며, 배치로 묶는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
  - 또한, 병렬 처리를 통해 데이터 로딩 속도를 높일 수 있다

# Dataset 만들기

---

- `tf.data.Dataset.from_tensor_slices()`는 배열, 텐서, 리스트, 파일 경로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아
- 개별 요소로 슬라이싱하여 텐서플로의 Dataset 타입으로 만든다

- `import tensorflow as tf`
- `import numpy as np`

- `data = np.array([1, 2, 3, 4, 5])` # numpy 배열 생성

- `dataset = tf.data.Dataset.from_tensor_slices(data)` # TensorFlow 데이터셋 생성

- `print(type(dataset))`

# 데이터셋의 각 요소 출력

- `for element in dataset:`  
    `print(element.numpy())`

# Dataset 사용예 (1/2)

---

- 넘파이 배열을 Dataset으로 변환하여 모델에 주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본다

- `import tensorflow as tf`
- `import numpy as np`

# 예제 데이터 생성

- `x_data = np.random.random((100, 32))`
- `y_data = np.random.randint(0, 10, (100,))`

- `dataset = tf.data.Dataset.from_tensor_slices((x_data, y_data))` # TensorFlow 데이터셋 생성

# 사용자 정의 전처리 함수

- `def preprocess(x, y):`
  - `x = tf.cast(x, tf.float32)` # 독립변수는 float32형으로 타입 변환
  - `y = tf.cast(y, tf.int64)` # 종속변수는 int64형으로 타입 변환. 이 외에 다양한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
  - `return x, y`

## Dataset 사용예 (2/2)

- `dataset = dataset.map(preprocess)` # 전처리 함수 적용
  - `dataset = dataset.shuffle(buffer_size=100)` # 셔플
  - `dataset = dataset.batch(32)` # 배치로 묶기
  - `dataset = dataset.prefetch(tf.data.experimental.AUTOTUNE)`  
# 시스템 리소스에 따라 병렬 처리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고(AUTOTUNE),  
prefetch() 함수로 다음 배치를 로드하고 준비한다
- # 모델 설계
- `from tensorflow.keras.models import Sequential`
  - `from tensorflow.keras.layers import Dense`
  - `model = Sequential([`  
    `Dense(64, activation='relu', input_shape=(32,)),`  
    `Dense(10, activation='softmax')`  
    `])`
  - `model.compile(optimizer='adam', loss='sparse_categorical_crossentropy', metrics=['accuracy'])`
  - `model.fit(dataset, epochs=10)` # 모델 훈련. tf.data.Dataset 객체를 모델의 fit 메서드에 바로 전달